

“변화·개혁, 신뢰받는 체육행정 이끌 것”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출마 선언 강태선 회장

스포츠에 경영마인드 도입 비인기 종목, 경기에 축제 더해 활성화 ‘4년을 8년 처럼’ 투명한 운영 시스템 구축... 밝은 스포츠 미래 열 것 ‘반쪽짜리 체육회 법인화’... 현실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중

“스포츠는 경제이며, 스포츠 선진국이 경제 선진국이라는 신념으로 대한체육회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경영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체육계 여론을 수렴 중인 강태선(75·블랙야크 회장·출마의향서 제출에 따라 현재 서울시체육회장 직무정지) 회장이 지난주 부산에 이어 10일 광주를 찾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 회장은 “체육 행정을 투명하고 유능하게 개선하는 ‘Change our SPORT’(우리의 체육을 일신하자) 슬로건 아래 ‘군림하지 않고 지원하는 체육 행정’, ‘현장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적인 체육 행정’을 구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스포츠, 국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를 위한 공약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외부 감사시스템 도입’으로 신뢰 구축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경쟁력 제고 ▲학교체육 정상화와 선수·지도자 처우 개선 ▲글로벌 스포츠 역량 강화로 대한민국 스포츠 국제적 위상 제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제시했다.

현재 일선 시·도체육회에서 민선체육회 출범에도 불구하고 체육계의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

는 예산 집행 등 반쪽짜리 법인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다는 지적에 강 회장은 “이를 극복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체육정책의 방향성 제고를 위해 시·도체육회, 종목단체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엘리트 스포츠 비인기 종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강 회장은 “비인기 종목도 관중이 많이 오면 인기종목이 되는 거다. 관중이 안 와서 비인기 종목인데, 경기를 이벤트화해 축제로 만들면 인기종목이 된다. 안 팔리는 물건을 파는 게 영업이고, 그게 경영”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번 광주 방문에서 2008하게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2036 서울올림픽을 유치할 예정이다. 스포츠관광과 융·복합을 통해 주요 지자체들이 글로벌 스포츠관광도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8년 동안 4년만 일한 것 같이 한 사람도 있고, 4년을 8년 같이 쓰는 사람도 있다. 나는 4년을 8년 같이 일하겠다. 그게 경영”이라며 임기내 약속한 것들을 이루겠다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장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의 체육회 불신과 불



강태선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가 10일 광주시체육회 자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통의 벽을 깨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길이려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산악인이면서 BYN블랙야크를 창업한 자수성가형 기업가다. 경영과 환경 전문가임을 내세워 대한 체육회 행정을 일신할 최고 전문가임을 자신하고 있다. 체육계에서 다소 인지도가 떨어진다든 평가도 있으나 실제 1990년대부터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을 맡은 뒤 대한체육회 대의원, 서울시체육회 이사, 대한골프협회 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시체육회를 이끈 명실상부한 체육인이다. /박희중 기자

한국배드민턴 ‘간판 스타’ 안세영

BWF ‘올해의 여자 선수’ 영예

한국 배드민턴 간판이자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삼성생명)이 2년 연속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올해의 여자 선수 영예를 안았다.

안세영은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WF 시상식에서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품에 안았다.

이뿐 아니라 ‘여자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에도 선정돼 2관왕을 달성했다.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로 우뚝 선 안세영이지만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때 무릎을 다친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는 기복을 보였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우승한 뒤 그다음 주 인도오픈 8강전에서 허벅지 근육 부상이 겹쳐 기권했다.

3월 프랑스오픈을 제패하고 출전한 전영오픈에선 체력 난조로 준결승전에서 탈락했지만, 6월 싱가포르 오픈에서는 다시 정상에 섰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치르기도 전에 국제대회 우승 10차례, 준우승 3차례는 화려한 성적을 자랑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주춤한 것이다.

하지만 통증을 안고 뛴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에서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기어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배드민턴의 올림픽 단식 종목 우승은 남녀를 통틀어 1986 애틀랜타



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 /연합뉴스

대회 방수현 이후 역대 두 번째이자 28년 만이었다.

금메달 수확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대표팀의 운영상 문제를 질타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안세영은 지난 10월 덴마크 오픈을 통해 국제 무대에 복귀했다.

이 대회에서 왕즈이(중국)에 막혀 준우승을 거둔 안세영은 지난달 중국 마스터스에서 부상을 완전히 털어낸 듯 한결 가벼운 움직임을 뽐내며 가벼하게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전남도민 염원 K리그1 승격 도전 최선”

전남 드래곤즈 김현석 감독 선임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2(2부)에서 충남아산의 돌풍을 지휘했던 김현석(57) 감독이 다음 시즌에는 전남 드래곤즈에서 다시 1부 승격에 도전한다.

전남은 10일 “2024시즌 K리그2에서 최고의 지도력을 선보인 김현석 감독이 2025시즌부터 전남과 함께 K리그1 승격에 도전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석 감독은 현역 시절 리그컵을 포함해 373경기에 출전, 111골 54도움을 기록하고 K리그 베스트11 6회, 최우수선수(MVP·1996년), 득점왕(1997년) 등을 수상한 K리그 전설이다.

등 뒤 직후인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울산 현대(현 울산 HD) 코치로 활동했으며 이후 울산대 감독, 울산 현대 유소년 강화부장을 거쳐 2022년 충남아산 사무국장에 부임했다.

그리고서 2024년 충남아산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팀을 역대 최고 성적인 K리그2 2위에 올려놓고 승강 플레이오프(PO)에도 진출시켰다.



전남 드래곤즈 제16대 사령탑에 오른 김현석 감독. <전남 드래곤즈 제공>

곧바로 새 팀을 맡게 된 김현석 감독은 “전남 드래곤즈와 함께 승격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감독은 “전남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 전남은 과거 끈끈한 축구로 한국 축구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으며 열광적인 지역민들과 서포터스분들이 동행한다”면서 “전남도민이 염원하는 K리그1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말 바쁘다 바빠’ 김도영 “트로피 추가요!”

KIA 김도영, 일구상 최고 타자상·홍세완 코치, 프로지도자상 수상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트로피 대전’을 이어갔다.

김도영은 10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4 뉴트리티데이 일구상 시상식에서 최고 타자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올해에만 트로피 컬렉션을 7개로 늘렸다.

그는 이미 은퇴선수협회가 선정한 ‘최고의 선수상’,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리얼 글러브 어워드(REAL GLOVE AWARD) 올해의 선수상과 Fan’s Choice 플레이어상’, ‘2024 동아스포츠대상’, ‘2024 조야체육 프로야구 대상’을 휩쓸며, 리그 안팎에서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오는 13일 예정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만큼, 트로피 박스에 더 많은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김도영은 최연소 및 최소 경기로 30(홈런)-30(도루)를 달성하는 등 타격 전 부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리그를 지배했다. 총 141경기에 출장해 타율(0.347) 3위,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1.067) 1위, 루타(352) 1위, 3루타(10) 1위, 홈런(38) 2위, 안타(189) 3위 등 대부분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자리했다.

특히, 143득점은 단일 시즌 최다 기록이었다. 그의 뛰어난 활약 속에 KIA는 7년 만의 정규리그 1위에 이어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다. 또, 프리미어12에서도 홈런 3개를 포함해 OPS(출루율+장타율) 1.503을 기록하며 국제대회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타자다운 활약을 이어갔다.

한편, 프로지도자상은 KIA 홍세완 타격 코치가 수상했다. 홍세완 코치는 올해 타격 코치를 맡아 KIA를 리그 최고의 핵타선으로 만들어냈다. KIA 타선은 타율(0.301), 출루율(0.459), 장타율(0.369), OPS(0.828)에서 모두 1위에 올랐고, 홈런(163)은 삼성과 NC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주홍철 기자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10일 열린 ‘2024 뉴트리티데이 일구상 시상식’에서 최고 타자상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1조원 클럽’ 소토, 스윙할 때마다 6천600만원

총수입 5만원원으로 쌓으면 롯데타워 4배...한라산도 넘는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야구 선수 후안 소토(26)가 세계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 계약’을 앞두면서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다.

MLB닷컴 등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계약선수(FA) 소토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 15년 7억6천500만달러(약 1조955억원) 규모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이라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치다.

AP통신은 10일 소토가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2024시즌 개인 기록과 결부해 설명했다.

AP통신은 “소토는 2024년 MLB 뉴욕 양키스에서 타율 0.288, 109타점, 41 홈런을 쳤다”며 “이 기록을 계속 유지한다면 향후 15년 동안 홈런 1개당 약 120만달러(17억원), 1타점당 46만7천800달러(7억7천만원), 안타 1개당 30만7천229달러(4억4천만원)를 받는 셈”이라고 전했다.

소토는 경기장에서 ‘숨만 쉬어도’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

연평균 수입을 출전 경기 수로 나누면 한 경기당 31만4천815달러(4억5천만원)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한 번 방방이를 휘두를 때마다 4만6천322달러(6천600만원)가 통장

으로 들어온다.

소토의 몸값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다. 그는 15년 동안 2024시즌 성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한 타석당 약 1억원씩 받는다.

KBO리그 2024시즌 평균 연봉은 1억 5천455만원으로, 소토는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에 가까운 수입을 수령하는 셈이다. 소토가 연봉을 2년 정도 모으면 KBO리그 구단을 인수할 수도 있다.

신세계그룹은 2021년 SK 와이번스를 인수할 때 1천352억원을 지불했다. 소토가 수입을 현금으로 받는 건 불가능하다.

5만원권 100장의 두께는 약 1.1cm로 1조955억원을 오만원권으로 쌓으면 약



돈방석에 앉은 후안 소토 /AP=연합뉴스 DB

2천400m가 된다. 국내 최고층 빌딩 잠실 롯데타워(555m)의 4배가 넘고 한라산(1천947m)보다 높다.

소토를 영입할 돈이면 KBO리그 5개 구단에 돔구장을 선물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장유빈, 한국국적 선수 최초 LIV 골프 이적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상금왕과 대상, 최저타수상을 휩쓴 장유빈이 내년에는 LIV 골프로 옮긴다.

LIV 골프 사정에 밝은 골프계 인사들에 따르면 장유빈이 내년엔 LIV 골프 아이언헤드 GC에 합류한다고 10일 전했다.

장유빈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올댓스포츠 구동희 대표는 “11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유빈이 LIV 골프로 옮기면 한국 국적으로는 최초의 선수가 된다.

LIV 골프 아이언헤드 GC는 미국 교포 케빈 나가 이끄는 팀이다.

최근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와 고즈마 주니치로(일본)를 내린 팀원으로



장유빈 <KPGA 제공> 마치고 장유빈과 접

촉한 끝에 이적 결심을 끌어냈고 지난 5일부터 나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아시안투어 시즌 최종전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에 장유빈과 동반 출전해 이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